■ 정기국회 쟁점과 여야 전략

작통권·바다이야기… 공방 치열할 듯

우리당, 비정규직법 처리 등 '민생 우선'
한나라, "현정부 실정부각" 주도권 잡기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여야는 각각 의원 워크숍을 열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막판 전열을 가다듬었다.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17대 마지막이 될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야만 내년 대선정국을 리드해 나가기가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정국의 빅이슈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우리당은 비정규직 보호3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국가재정법, 사행산업 규제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9월중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만큼은 손댈 수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워 놓았다.

특히 우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3법이나 금산법 등의 경우 이미 한나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만큼 사학법과 연계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국의 현안으로 등장한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서는 성역없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정국경색이 지나친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돼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민생, 경제, 안보의 세가지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제1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 확산에 따른 서민 피해와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 및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명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원내대표단은 ▲이슈의 선택과 집중 ▲현장 조사 강화 ▲언론 홍보활동 강화 ▲민생경제 회복 관련 예산 관철 등을 주문하고 '정기국회 대책단'과 '당홈페이지내 국감특별사이트'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워크숍에서 "나라를 건지는 '119 국회'를 하면서 세금과의 전쟁에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는 노무현 정권 3년 반의 실정을 총결산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김원기 고문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與, 워크숍서 자성 목소리 이어져

당지도부·중진의원들 참담함 피력
"정기 국회서 비전·희망 제시해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창당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참담한 현실에 대한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근태 의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한길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우리 맘대로 안 되고 든든한 우리 편인 전라도도 여의치 않으며,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있지만 경상도 민심은 요지부동이고 '행복도시'다 뭐다 했지만 충청도도 돌아앉았다"며 "우리 편인 줄 알았던 30, 40대와 젊은 20대마저 한나라당이 좋다고 한다"고 열린우리당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이번 정기 국회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 의원들 모두 공감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일하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참담하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희망은 더욱 절실하고 구체성을 띠게 된다"며 "열린우리당의 진심을 국민이 알아줄 때까지 더욱 열심히 민심에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의원 전용 승강기 부활
하루만에 '없던 일로'

17대 국회 들어 탈권위주의의 상징처럼 폐지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의 '의원 전용' 승강기 부활 여부가 제기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백지화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관과 의원회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두 곳의 일부 승강기를 의원전용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반대해 이를 백지화했다고 발표했다.

사무처는 앞서 30일 "승강기 이용과 관련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불편사항이 있어 본관 16대중 2대, 의원회관 12대중 2대를 의원 전용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며 본관과 의원회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진만기자 man21@

'남해안발전법' 제출
신중식 의원 등 20명

민주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이 지난달 31일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 지역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통해 남해안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중식 의원은 "동서화합을 통해 통합된 선진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남해안을 균형 발전시키고자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최진만기자 man21@

"우리당-민주당 해체 통한 제3당 창당해야 정권 재창출"

염동연 전 사무총장

염동연 열린우리당 전 사무총장〈사진〉은 30일 여권의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권 개편 논의와 관련,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계 대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염 의원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수진영은 엄청난 결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권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염 의원은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 통합론에 대해 "우리당이 민주당보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 하거나, 민주당이 우리당보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면서 "따라서 제3의 지대에서 새 집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제3지대론'을 역설했다.

이같은 언급은 여권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뿌리를 같이 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 통합은 필수적이며, 다만 두당의 통합은 흡수통합 방식이 아니라 발전적 해체를 통한 제3의 정당 창당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제3의 지대에는 과거의 정통 민주개혁세력 외에 지식정보화 세대인 미래세력과 전문가 집단이 대거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량있는 후보들을 내세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경선 과정을 거치면 여권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추가 지원"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외에 별도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혁신성공사례 지역예선대회' 참석차 광주에 온 성경륭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타 지역과 달리 혁신도시 건설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한 만큼 추가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을 만드는 시기이므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명확한 지원책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노력으로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또 수도권 기업들이 광주를 비롯해 충청권 이남 지역으로의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도권 기업들은 접근성 때문에 강원 또는 충청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원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